

필리핀 단기어학연수 파견자 결과보고서

1. 기본정보

이름	유승희	학번	20172677
파견국가	필리핀	파견도시	수빅
파견대학	바탄반도주립대학	기간	2018.6.30.(토) ~ 2018.7.27(금)

2. 파견대학, 수업 및 Activity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파견 대학은 아니고 어학원인데 산속에 있습니다. 규모는 생각보다 컸었고 5 층까지 있습니다. 1 층은 식당과 교실, 매점, 교사식당이 있고 2 층은 교무실, 사무실과 기숙사 교실로 3~5 층은 기숙사와 교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옛날에 미국 부대가 지은 건물을 조금 개조해서 사용하는 거라고 선생님께 들었는데, 오래된 만큼 보수 공사가 있었다 해도 부실해 보이는 곳들이 곳곳 있습니다.
수업	수업은 조별과 개인별로 진행됩니다. 조는 필리핀에 도착하고 다음날 아침에 레벨 테스트를 한 결과로 나눕니다. 강사분들은 모두 좋았습니다. 수업 방법은 강사분들마다 다른데 모두 괜찮았고, 수업방식이 맞지 않으면 강사분 바꿀 수 있습니다. 과제는 싫다 하면 안 내주십니다. 학생들이 좀 피곤해하거나 지루해하면 가끔 게임도 하면서 열심히 가르쳐주세요. MMC 라고 뮤직비디오와 CF 를 제작하는데 생각보다 시간을 많이 뺏깁니다.

Activity	수업 외에 별도로 진행된 Activity 에 대해 서술해 주세요. - Activity 종류, 내용, 준비물, 추가비용 등 첫째주 주말 : 수빅투어 - 필리핀에 도착해서 자고 일어난 다음 날 진행했던 액티비티. 한 달 동안 필요한 물품들을 구입할 수 있는 마트들도 구경하고, 환전도 하고, 유심도 구입했습니다. 현지인 선생님과 함께 다녀서 안전하고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유익한 액티비티였습니다. 수빅 지역의 교통수단도 이용해보고 전통시장에서 망고도 저렴한 가격에 사 먹고, 마지막으로 수빅베이를 갔다가 근처 뷰가 좋은 식당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둘째주 주말 : 안바야 코브(리조트) - 수영장과 레스토랑 바다가 있는 엄청 좋은 리조트. 진짜 크고 예뻐요. 1000 페소씩 낸 다음 쓴 만큼 깎고 400 페소 정도 돌려받았어요. 준비물은 수영복! 그리고 머릿결 안 좋으신 분들은 린스 챙겨가세요. 샤워실에 샴푸랑 바디워시만 있습니다. 마트에 일회용 팔아요. 액티비티 중에 안바야 코브가 제일 좋았습니다. 정말 예쁘고 편안한 휴양지! 예쁜 옷 챙겨가서 수영하기 전에 사진 많이 찍으세요! 이탈리아 레스토랑 까르보나라 정말 맛있었습니다. 망고주스도 진짜 맛있어요. 셋째주 주말 : 마닐라투어 - 필리핀 온 김에 수도로 여행가는 것은 좋았지만, 미션을 해야 해서 박물관이나 역사 깊은 건물들에는 거의 아예 못 들어가고 밖에서 사진만 찍으면서 다녔습니다. 사진찍은 곳이 정확하게 어떤 곳인지 이해도 못한 상황에서 바쁘게 미션만 했습니다. 그 점이 아쉽네요. 그리고 공기가 수빅보다 엄청 안 좋고 엄청 더웠습니다. 물론 평일에는 오전에는 어학원내에서만 활동하고 5시 이후부터 외출을 하니 하루 종일 낮에 활동한 마닐라가 더 덥게 느껴 졌을 수도 있습니다. 경비를 받아서 활동해서 개인 지출은 별로 없었습니다. 넷째주 주말 : 태풍, 홍수로 인해 취소
----------	---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현재 2018 년 8 월 1 일 날씨 보다 훨씬 안 덥습니다. (서울 39 도) 여름이 우기라 비는 매일 잠깐씩 왔지만 정말 잠깐 왔고 오후에는 거의 안 왔습니다. 오전에는 정말 더워서 비가 잠깐씩 오는 게 더 좋았습니다.

	8시부터 5 시까지는 시원하다 못해 추운 교실에서 편안하게 수업을 듣고, 오후에 활동할 때는 비가 온 적이 별로 없고, 날씨도 많이 안 더워서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주말 오전에 활동할 때는 우산은 필수! 양산으로도 많이 이용했습니다. 마닐라는 수빅보다 훨씬 덥고 공기가 안 좋았습니다. 태풍, 홍수, 지진이 났었습니다.
안전	현지 안전 상황 지진이 한번 났었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아니겠지 하고 지내다가 또 한 번 정말 지진이라고 느껴지는 흔들림에 우리 학교 학생들은 기숙사방에서 다 나와서 어리둥절해했고, 몇몇 선생님들은 건물 밖으로 나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따로 공지도 없었고, 대피 방송도 없어서 그냥 지냈는데 검색해보니 지진이 맞았습니다. 기숙사 방 중 한 방의 화장실 천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또 한 방은 구멍이 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침대가 부서진 방도 있었습니다. 옛날에 미군이 지은 건물이라 튼튼하다고 선생님들께서 그러셨는데, 그만큼 오래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태풍, 홍수가 났을 때 기숙사는 안전했습니다. 그런데 기숙사에서 나와 조금만 걸어가면 태풍의 피해로 산사태 가나서 도로가 흙으로 덮혀 지나갈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운이 안 좋았으면 기숙사도 위험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생님들 집은 허리까지 물이 차신 분도 있었고, 시내로 나가는 길도 물이 허리까지 차서 마지막주 주말은 기숙사에서 보냈습니다. 하지만 몇년만에 일어난 큰 태풍과 홍수라고 하니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
숙소	학교기숙사(0) 홈스테이() 외부 숙소() 기타() 숙소 시설, 분위기, 규칙, 유의사항 등 숙소 전반에 대한 평가 숙소는 위에 안전에 관해 말한 것 외에는 만족스러웠습니다. 에어컨도 잘 나오고, 청소도 잘해주셨습니다. 다만 음식물 처리를 제대로 안 하면 개미들이 엄청 꼬이고, 그냥 갑자기 벌레들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통금이 보통 평일은 10 시인데 술 마시는게 아니면 할일 다 하고 와도 적당한 시간이었습니다.

식사	학교식당(0) 홈스테이 () 외부식당 () 기타() 필리핀 가기 전 오티에서 이사님이 말씀하시는 것 만큼 엄청나게 맛있진 않습니다. 대체로 괜찮고, 일주일에 한 두 번은 별로다 싶었습니다. 주말과 매일 저녁 식사 투표를 합니다. slc 안에서 식사하는지 밖에서 식사하는지.
교통	통학방법, 시내교통 관련 대체로 수업 끝나고는 샌딩서비스를 이용해서 무료로 FB 를 타고 시내로 나갔고, 하루에 샌딩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이 정해져 있어서 못 타면 FB 나 택시를 타는데 어학원에서 시내까지 FB 는 14 페소밖에 안하고, 택시는 조금 더 비싸지만 얼마 안 했습니다.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 450 달러 23000 페소

※ 출국 전 사전 납부 금액 외에 추가로 현지에서 본인 지출내역을 써주세요.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 유학허가증(SSP), 여행자보험	727,000	출국 전 사전 납부
안바야코브 리조트	1000P	
바베큐파티	400P	
공항세	600P	
생활비, 기념품	20000P	
합계	약 130 만원	

5. 출국 전 준비사항

파견 전 반드시 꼭 알아야 할 사항, 알았으면 좋았을 사항 중심으로 서술해 주세요.

모기가 생각보다 많아서 버무리 챙겨 가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수업시간 외에 공부하는 사람은 못 봤습니다.

한 달이라는 짧은 어학연수 기간에서 영어로 말이 트이는 것만으로 잘 다녀왔다고 생각합니다. 조별로 뮤직비디오와 CF를 제작하니 적극적으로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이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시간을 많이 뺏깁니다.

기숙사에 수영장이 있으니 수영복 챙겨오세요.

그리고 매주 금요일마다 FUN FRIDAY를 진행하는데, 제가 갔을 때는 긴 양말 신는 날, 핑크 옷입는날등을 진행했는데 주제에 맞는 뭔가가 없으면 나가서 사와야 합니다.

기념품 딱히 필리핀 ST로 살만한게 많이 없습니다.

헤어질 때 선생님들께 드릴 선물을 미리 챙겨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가기전에 저 말을 듣고도 깜빡하고 못 사갔는데 많이 후회했습니다.

필리핀에서 살 수 없는 전통적인 물건이나, 먹을 것을 사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바야 코브 진짜 좋습니다. 예쁜 옷 입고가셔서 수영하기 전에 사진 많이 찍으세요!

뷔페보단 이탈리아 식당 추천 드려요!

어학원 앞에 트리 탑이라고 여러가지 숲에서 줌라인이랑 여러 어드벤처 기구를 탈 수 있는 곳이 있는데, 슈퍼맨 진짜 재밌어요 추천!! 가격도 저렴!

6. 본인 소감 및 평가

본인의 경험담, 느낀 점, 향후 계획 등을 솔직하고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

고양이들이 항상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어학연수를 통해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었고, 선생님들도 한 달 동안 짧게 만났어도 너무 정이 붙어서 헤어질 때 우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공부때문이 아니더라도 힐링하고 싶은 분들 일상속에서 벗어나 색다른 경험하고 싶으신 분들 정말 추천 드려요!

7. 사진보고서(6 장 이상)

	
숙소 4 층에서 보이는 바깥풍경	FUN FRIDAY. HIGHT COLOR SOCKS DAY
	
트리탑에서 슈퍼맨 타는 사진 진짜 재미있습니다. 밑에 엄청 깊은 숲이 보여요. 엄청 빠릅니다.	1,2 층에 맨날 있는 고양이들! 리라와 카라멜!

	
안바야코브 풀장	안바야 코브 해변
	
안바야코브 해변	안바야코브 이탈리아 식당 베이컨 샐러드는 비추 파스타는 파스타 종류 맨 위에 있었던 세트 같은데 가운데 까르보나라 진짜 최고 맛있었어요